

인간의 질문: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나요?
하나님의 대답: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1:1-4, 2:4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극심한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전체주의냐?

지난 두어 달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법, 부정, 부조리를 보았다.

공수처, 헌재, 선관위, 국회, 국정원, 군대 장군들

이 세상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존경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추악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비리, 공수처 불법, 헌재 문형배 등의 좌익 사상, 더불어 당의 내란 회유

어떨 때는 눈물이 쏟아진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 인생의 문제, 국가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가? 롬15:4

특히 교회와 국가가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언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다 국가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나라의 흥망성쇠 이야기,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받고 있다. 총성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의 전 분야에 이런 국가들의 세력이 침투하고 심지어 선거 시스템까지 장악하여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실제로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다. 중국 화웨이 장비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카톡 등 개인과 국가의 모든 것을 검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각한 죄, 심지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오늘 < > 왜 어떤 때는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아야 할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라를 잃어야 할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박국서의 1-3장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박국 개요

기록자: 하박국, 기록 시기: 주전 6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 이름: 하박국은 '껴안다'를 뜻한다. 대언자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주님께 질문했다.

주제: 바빌론의 갈대아 사람들(악인들)을 통해 유다(어느 면에서 의인들)를 심판하는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기록하심

내용: 하박국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포위하기 직전에 대언을 했다. 이 대언서의 구조와 신학적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처음 두 장에는 주 하나님과 대언자 사이의 대화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언자는 몇몇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아울러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악을 참으실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주께 요구한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며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을 성취하여 달라고 즉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한다. 이 기도에 이어 그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며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환상 계시를 받고 그 결과 경외와 확신에 싸이게 된다.

핵심 절: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2:4), 핵심 단어: 믿음

하박국 연구

하박국은 대언자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 당시 왕 요시아, 여호야김 시대, 유다 멸망 직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세 번 유다 공격, BC 606, 597, 586, 유다는 멸망함

하박국 1장: 국가와 세상 역사로 인해 근심하는 하박국 대언자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 변영 복음(기복 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일이 다 잘될 것이다.

성경의 대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고전10:13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원한 생명
그런데 동시에 불신자로 지내던 때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닥친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내게 닥치는가?” 답후3:12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실이 아니거나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욥기, 욥의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네게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너는 악인이다. 이것은 착각이다.

시22:1을 보라, 다윗과 예수님의 외침

하박국은 유다 땅의 사정과 국제 정세를 보면서 심각한 문제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갔다.

1. 첫째 질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관심한가요?

하박국은 대언자로서 유다 왕국이 쇠퇴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현시대 목사의 책무 중 하나

선한 왕 요시아의 죽음(BC 610년경) 이후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함

그의 종교적 개혁을 대다수 백성이 잊어버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점점 저 멸망 쪽으로 나라를 이끌고 감

1. 대언자의 염려(2-3).

불법, 학대, 노략, 폭력, 불화, 다툼 등의 단어, 시대가 불안정하고 악함을 보여 준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 듯 조용히 계신다.

2절의 부르짖음,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응답이 없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일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점점 더 부담을 느낀다.

2. 근본 원인(4),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이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약자들 착취함, 뇌물을 써서 재판을 굽게 함

율법이 왜곡되어 힘을 잃는데도 나서는 자가 없다.

재판관들도 비뚤어졌다.

3. 주님의 조언(5-11)

주님은 대언자에게 응답하시며 자신이 민족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을 알려신다. 물론 하박국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에게 설명이 아니라 환상 계시를 주신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창1:1

다만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서 대언자도 깜짝 놀란다(5).

하나님은 사악한 바빌론 사람들을 써서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신다(6).

그들의 특징(6-7)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주님은 자연계의 그림들을 사용해서 바빌론 사람들을 묘사하신다.

그들의 말은 표범처럼 빠르다. 이리처럼 사납다(8).

그들의 군대는 독수리처럼 희생물에 내려앉는다(8).

그리고 바람처럼 사막을 휩쓸고 간다(9).

과연 누가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교도들) 편에서 계신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빌론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이나 권세를 존중하지 않는다(10).

그들의 풍습: 왕을 잡아서 새장 같은 데 가두고 조롱하며 데리고 간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신을 신뢰하고 그 신에게 의존하다(11).

하박국의 깨달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들에 무관심하지 않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심지어 악인들인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려 하신다.

이것은 물론 하박국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부흥을 보내실 것을 기대하였다(3;2).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땅에 의를 확립할 것을 기대하였다. 물론 유다 백성이 형벌을 벗어나서 용서받기를 기대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몇 백 년 동안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경고하셨다(대하36:14-21).

그러나 유다 백성은 듣지 않음

기근, 재앙,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 등을 가져와도 마찬가지

오히려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름

2. 둘째 질문: 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나요?(12-17)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은 답이 아니었다. 더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일으켰다.

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까?

1. 하나님의 거룩하심(12-13)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문제들에 직면한다.

의심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박국처럼 의심하는 사람, 문제 제기, 주님과 토론,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불신은 의지의 문제, 의심은 상한 심령, 고통당하는 마음의 문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로 든다(12-13).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써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유다 사람들의 악행은 처벌 대상,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

다른 사람들 사용 OK,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은 No!

그러면 유다는 완전히 망하는가? 아니다. (12)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법의 형벌을 당해야만 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1. 하나님은 전쟁, 기근, 대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는다.

2. 더 많은 빛을 받으면 책임도 그만큼 더 커진다.

바빌론 사람들, 악인들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상 숭배(16절)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출19-20).

그러므로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

특히 그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실로 매우 심각한 죄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말한다(12).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

그런데 국내 국외 정세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현 시대 대한민국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 종북 주사파들이 나라 장악, 다수의 백성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다.

사실 이런 것들로 고민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면 늘 미성숙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하게 된다(벧후3:18).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 다음을 생각하기 바란다.

1. 일단 멈추고 생각을 깊이 하기 바란다. 불안 공포 이런 것을 뒤로 미뤄 두고.
2.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3. 하나님의 성품을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자
4.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신 분(12),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일을 아시는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 거짓을 미워하는 분

그래서 진리 편에 선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주시려고 때로는 악인들도 세우시고 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도 하신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대언자의 항변 요약 1:17, 바빌론같이 나쁜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나요?

지금 식으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도록 두고만 보실 건가요?

이 모든 것을 말한 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다린다(2:1).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 2장에 있다. 특별히 2:4를 보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비교

1. 죄인: 바빌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적으로 인해 교만하게 됨(4), 죄인 묘사 5-12절, 15-19절 거의 난공불락의 제국 건설(단4:30)

바빌론 사람들과 느부갓네살만 교만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

인생의 자랑(요일2:15-17),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교만은 또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다.

바빌론 사람들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략해서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 모든 왕들이 결국 패망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2. 의인: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2:4), 롬1:17, 갈3:11, 히10:38

하나님의 답과 위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믿음과 은혜는 같이 다닌다.

A. 합2:14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지금 세상, 폭력과 부패로 가득하다(창6:5, 11-13). 그러나 결국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B. 합2:20: 하나님의 통치

제국들은 서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왕좌에 앉아 계신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시다.

그 결과 그들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예배

하박국이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3:2), 두려웠나이다.
그는 3-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았다.

그 결과 힘을 잃게 되었다(16).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기도한 이유: 하나님의 일이 되살아나도록(이스라엘 관련), 1:5를 기억하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이 변영하도록 기도한다(2).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박국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기도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였다(2).

유다 사람들의 징계, 하박국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한다.
하박국처럼 교회의 상태, 국가의 상태, 세상의 상태, 나의 비참한 영적 상태로 인해 낙심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

3. 믿음의 삶(17-19)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알았다.

백성의 다수가 죽고 포로 생활

땅이 초토화된다. 성전이 파괴된다.

하박국의 고백: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1.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겠다(16)

그는 감정에 의지하지 않았다.

앞날을 바라보니 바빌론 침공, 안을 바라보니 본인 스스로 떨고 있다. 사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았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믿음으로 걷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초점을 두는 것

믿음의 요소: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1:5).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기를 기도하였다(3:2).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2. 나는 주를 기뻐하리라(17-18)

바빌론 사람들 침략,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2:17)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2:20).

하나님은 그의 힘(19), 그의 구원과 노래(18)

그는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16),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19). 암사슴처럼

결론

의심, 어려움 솔직하게 주님께 토로하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기다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경배하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한다.